

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

CONTENTS

1.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단실무

- 업무상 재해 인정
- 업무상 재해 판단실무

2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

-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
 - 산업재해보상 청구
 -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

part 1.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단실무

1. 업무상 재해 인정

1)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인정 기준

가. 업무상 재해의 의의

① 업무상 재해

-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장해 또는 사망

② 업무

-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

나.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

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한 재해

-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
 -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 -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 -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 -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 -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
 -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, 화학물질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 -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 -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

-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- 상당인과관계란?
 - 범죄 발생의 원인과 관계에 관한 유형의 하나

- 어떤 원인이 있으면 보통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관계
- 입증 책임 :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족
- 판단 기준 : 해당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
- 입증 정도 :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, 발병 경위, 질병의 내용, 치료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우
 - 판단 기준
 - 업무수행성 :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소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
 - 업무기인성 :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
 -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
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수행과 업무 이간이라는 용어가 삭제 (두 가지 기준을 모두 엄격하게 갖출 필요는 없음)
 -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하며 상호 밀접한 관련
 - 판단 방법
 - <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>
 -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 · 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음
 -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
 - <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>
 - 질병의 발병이 시간적·장소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움
 -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대신 업무 기인성을 판단
 -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(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제 37조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)
- ③ 고의 · 자해 행위로 또는 범죄로 인한 재해가 아닌 경우
 - 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지 않음
 - 예외의 경우
 -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

2)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

가.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

①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재해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

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

-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
-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
-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 구조 행위 등

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

-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,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재해
- 예외의 경우
-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
-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

③ 휴게시간 중의 사고

-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

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

-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·홍수·지진·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
- 예외의 경우
- 근로자의 사적 행위, 업무이탈 등 업무와 관계 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

나.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

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

-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
- 예외의 경우
-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
- 근로자의 사적 행위
-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

②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

-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재해

다. 행사 중의 사고

① 행사 중의 사고

- 운동경기, 야유회,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, 연습을 포함
- 행사 중의 사고로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
 -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
 -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
 -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
 -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· 관례적으로 인정

라. 요양 중의 사고

① 요양 중의 사고

-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재해
- 요양 중의 사고로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
 -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
 -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,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마.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

①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

-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로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재해
-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
 -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의한 폭력 사고
 -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
-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 -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가 원인이 된 경우
 -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

3)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

가. 업무상 질병의 종류

- 직업성 질병

-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,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
- 재해성 질병

-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나.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의 인과관계

-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
-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맞는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)

다. 직업성 질병의 인정 기준

-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·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·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
- 유해 ·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,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
- 유해 ·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

라.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

-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
-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
- 기초질환 :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 발증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
- 기존질병 : 이전에 발증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

마.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
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

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	눈 또는 귀 질병
근골격계 질병	간 질병
호흡기계 질병	감염성 질병
림프조혈기계 질병	직업성 암
신경정신계 질병	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
피부 질병	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
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	

바.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

의 심의

- ① 심의 주체 :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
- ② 심의 상 고려사항 : 근로자의 성별, 연령, 건강 정도 및 체질
- ③ 심의 절차 : 보험 급여 신청 또는 청구 → 심의 의뢰 → 판정 및 결과의 알림
- ④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: 진폐, 이황화탄소 중독증,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,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

4) 출퇴근 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

가. 출퇴근 중의 사고

-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로 인한 재해
-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-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

2. 업무상 재해 판단실무

1) 사고성 재해 처리 실무

가. 1단계 : 사고 사실 확인

- ① 사고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.
 -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소가 없거나 경위가 다르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
- ② 사고 경위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.
 - 사실과 다른 사고경위로 요양신청이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
 - 승인 이후 거짓 경위가 드러나면 지급된 보험 급여의 2배를 관련자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음

- ③ 확인대상 : 재해자, 목격자, 보고받은 자, 작업장 사진 작업일보
- ④ 재해자를 통한 재해 경위서 작성
 - 직접 사고를 당한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 확인
 - 재해경위서를 서면으로 작성
 - 재해자와 사고 장소에 직접 가서 사고 경위 재현
- ⑤ 목격자를 통한 사고 사실 확인
 - 재해 경위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목격자로부터 사고 경위 재확인
 - 진술서상 내용과 재해자가 주장한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
- ⑥ 보고를 받은 자를 통한 사고 사실 확인
 - 보고를 받은 자 전원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
 - 경미한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담당자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몇 차례 보고 단계를 거침
 -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재해경위를 주장하는 경우, 수차례 보고 과정 중 사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음
- ⑦ 작업장 사진, 작업일보 등을 통한 재해 경위 확인
 - 사고 당일 보고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작업장 사진이나 작업 일보 등을 통해 당시 상황 확인
- ⑧ 확인내용
 - 사고장소 : 구두 확인 후 작업장 도면 혹은 사진으로 정확한 사고 위치 확인
 - 사고 기인물 : 기인물 존재 여부, 사고 직전 및 직후 상태 등
 - 사고 시 재해자의 자세 : 신체 중 먼저 닿은 부위, 사고 직후 자세 등
 - 작업내용 : 사고 직전 구체적인 작업내용
 - 목격자 위치 : 도면 등을 통해 재해자와 목격자간 거리 및 구체적 위치 확인

나. 2단계 : 상병과 사고와의 관련성 확인

- ① 재해자의 상병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 확인
 - 요통 등 기존 질환이 의심되는 상병은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
- ② 각종 의료 자료를 통한 확인
 - 소견서 등을 통한 정확한 상병명 확인
 - 기타 의료 자료를 통한 사고와의 관련성 확인
 - 의료기록은 본인 외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재해자를 통해 수령
- ③ 확인항목 및 확인내용
 - 소견서 : 상병명, 치료 내역 및 향후 치료 기간 등 확인

- 의무기록사본 : 사고 경위 등 확인용
- MRI 등 검사결과지 : 퇴행성 여부 등 확인용
- 건강보험 수진내역 : 상병 발병시점, 기존질환 등 확인용
- 건강진단 결과표 : 기존질환 등 확인용
- 동료근로자 진술 : 기존 질환 여부, 상병 발병시점 등 확인용

2) 질병성 재해 처리 실무

가. 1단계 : 상병명 확인

- ① 소견서 및 진단서를 통한 정확한 상병명 확인
 - 질병이 발병하는 원인을 확인 할 수 있음
 -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질병의 원인에 노출될 수 있는지 조사 가능
- ② 발병경위, 기존질환의 존재여부 등 확인
 - 사고성 재해와 마찬가지로 의무기록 사본,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 결과표와 동료근로자 문답을 통해 확인

나. 2단계 : 상병의 업무관련성 확인

- ① 2-1단계 :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확인
 - 재해가 업무 수행 중 상병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
 - 가장 먼저 산업 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확인
- ② 2-2단계 : 구체적인 작업내용 확인
 - 확인 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따라 작업 내용 확인
 - 확인항목 및 확인내용
 - 업무내용 :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
 - 근무경력 : 동 현장 이전 타 현장 근무경력
 - 담당직책 : 책임 정도
 - 작업방법 : 구체적 작업방법, 작업방법에 따른 업무 강도, 업무의 밀도 등
 - 업무시간 : 출퇴근 시간,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, 교대근무 여부 등
 - 휴게시간 : 휴게시간, 근로자 스스로 업무조절 가능성, 수면시간 확보 가능성
 - 작업내용 : 사고 직전 구체적인 작업내용
 - 작업환경 : 날씨, 기온 등
- ③ 2-3단계 : 개인적인 발병요인 확인
 -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

■ 확인항목 및 확인내용

- 기호식품 : 흡연량, 음주량, 건강식품 복용 여부
- 건강상태 : 평소의 건강상태, 평소의 약 복용 여부, 기존질환 존재여부 등
- 가족력 : 가족 중 유사질환자 존재 여부
- 가정환경 : 가족관계, 생활환경 등
- 과도한 여가활동 : 밤낚시, 야간산행, 인터넷 게임 등
- 부업 : 농사, 장사 여부 등
- 특별한 업무외적 사건 : 교통사고, 가정불화, 금전채무 등

part 2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

1.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

1) 정의

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?

-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
- 사용자의 「근로기준법」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(재원)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

2) 목적

가. 신속 · 공정한 재해보상

-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실시

나. 인간다운 생활보장

-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 설치와 재해예방, 각종 근로복지 사업을 추진

다. 안정된 기업활동

-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·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 도움

3) 필요성

가. 사회적 문제

- 1960년대 본격적 공업화 시작 → 산업재해 급격한 증가 →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문제 발생
-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제기

나. 민사소송의 어려움

- 산재보험이 등장하기 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았음
-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과실을 가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,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

다. 근로기준법의 한계

-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의 고의 · 과실과 상관없이, 일정 요건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
-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대형사고 등으로 도산된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
-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

4) 특성

가. 무과실 책임주의

-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·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하도록 함

나. 정률보상방식

- 피재근로자의 연령 · 직종 ·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

다. 강제사회보험

-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됨
- 이에 따라 실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라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

5) 운영원리

가. 보험사업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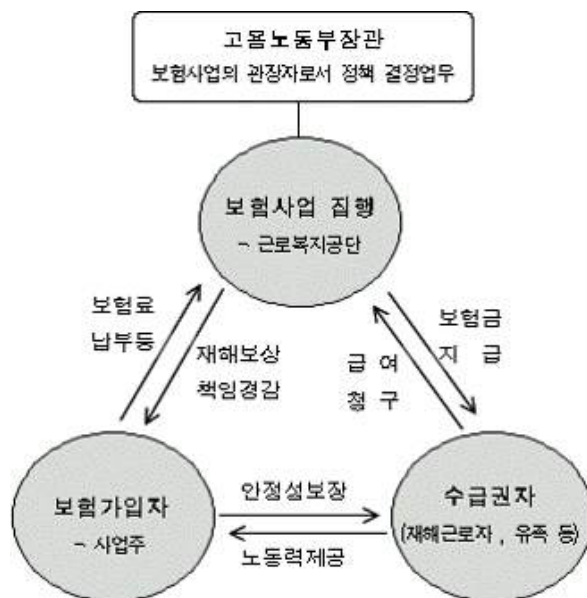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2조는 산재보험 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음
-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사업 집행 (동법 제10조)

나. 보험가입자

- 사업주가 보험가입자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 의무를 지님

다. 수급권자

-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
-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지만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혹은 그 유족



6) 주요 사업

가. 재해보상 (보험급여)

-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 및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일정률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업
- 종류

- 요양급여
- 휴업급여
- 장해급여
- 간병급여
- 유족급여
- 상병보상연금
- 장례비
- 직업재활급여

나. 재활사업

- 산재장해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

- 종류

- 맞춤형 통합서비스
- 직업훈련비용 · 수당 지원 사업
- 직장복귀지원금
-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급
- 창업지원사업
- 재활스포츠 지원사업
- 의료재활지원 사업 (후유 증상관리)
-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사업
- 심리상담
- 희망찾기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

다. 복지사업

-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일반근로자와 산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

- 종류

- ① 일반 근로자

- 근로자장학사업
-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
-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
-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사업
-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사업
-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등

- ② 산재 근로자

-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

-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
-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

2. 산업재해보상 청구

1) 보험급여 청구절차

가. 제출서류 준비

① 제출장소

- 근로복지공단

② 준비 주체

- 재해를 당한 근로자
-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이 청구할 수 있음
- 근로자 측에서 관련 서류 및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
③ 사업주의 조력

-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업무 및 출퇴근 관련 자료 제공
- 근로자의 임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임금관련 자료 제공

나. 접수 및 심의

① 조사 주체

- 근로복지공단 산재업무 담당자

- 추가로 필요한 자료 등을 근로자 측 혹은 사업주에게 요청
- 필요한 경우 재해자, 목격자, 관리자 등에 대해 출석, 유선, 방문 등의 형태로 조사 진행

- 업무상 질병 : 질병판정위원회

※ 심의제외 질병 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)

- 진폐증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
- 유해·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
-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

② 사업주의 조력

-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혹은 관련자 출석 조사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에 응할 수 있음

다.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이후

① 심사청구

■ 심사청구 제기기간

- 보험급여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

■ 심사청구 접수

-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소속 기관 (근로복지공단 지사) 에 접수
-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보내도록 함

■ 심사 주체

- 산재심사실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 심의 진행
- 아래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산재심사실에서 심의를 진행

■ 심사 결정

- 심사 결정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
- 부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

※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
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지 않으나, 제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
- 진폐인 경우
-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
-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

② 재심사청구

■ 재심사청구 제기기간

-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
- 단,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

■ 재심사청구 접수

-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
-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의 재심사위원회로 보내도록 함

■ 재심사 결정 기한

- 재심사 결정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
-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

③ 행정소송

■ 행정소송 접수

- 행정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

■ 행정소송 제기 방법

-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

- 임의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소송 제기

- 임의로 심사청구만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

2) 소멸시효

■ 재해사실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증거보전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,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를 하지 않는데 그 취지가 있음
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(시효)

-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

보험급여	소멸시효 기산일
요양급여청구권	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 (요양을 받은 날)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
휴업급여청구권	요양하느라고 휴업한 날 (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날)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
장래급여청구권	치유된 날의 다음 날
유족급여청구권	사망한 날의 다음 날
장례비청구권	장례를 지낸 날의 다음 날
간병급여청구권	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 날

3.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

1) 요양 중 산업재해보상

가. 요양급여

① 정의

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

■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

- 진료비, 입원비, 약제비 등은 공단이 각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지급

② 지급 요건

-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일 것
- 4일 이상의 요양일 것
- 3일 이내일 경우
-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행정업무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
- 「근로기준법」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

③ 지급기간

-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지급

④ 지급범위

- 진찰 및 검사
-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
- 처치 및 수술 그 밖의 치료
- 재활치료
- 입원
- 간호 및 간병
- 이송
-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

⑤ 산재보험 요양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

-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
- '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법'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
-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

나. 휴업급여

① 정의

-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

② 지급 요건

-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것
- 4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할 것
- 임금을 받지 못할 것

③ 지급 기간, 산정

-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에 대해 지급
-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

③ 지급금액

■ 부분휴업급여

- 상병이 경미하여 근무하면서 요양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
-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

■ 고령자 휴업급여

- 61세부터 휴업급여를 매년 4%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%를 감액
- 단,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감액을 하지 않음

■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

-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(평균임금의 70%) \leq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%인 경우 = 평균임금의 90%를 휴업급여로 지급
- 제1항에 따라 산정한지급액 < 최저임금액 =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
- 평균임금의 90% >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%인 경우 =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%를 휴업급여로 함

다. 상병보상연금

① 정의

-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재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

② 지급 요건

-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
-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 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
-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

③ 지급금액

- 원칙 : 휴업급여 중단 후 지급

- 제1급 : 평균임금의 329일분
- 제2급 : 평균임금의 291일분
- 제3급 : 평균임금의 257일분
-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
- 근로자의 평균임금 < 최저임금액의 70% (1일당 휴업급여액) = 최저임금액의 70%를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
- 상병보상연금액 ÷ 365 <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=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함
-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
- 감액 지급 해당 연령인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%씩 감액
- 평균임금 X (중증요양상태등급일수 / 365 - (연령에 따른 %))

2) 요양 종료 후 산업재해보상

가. 장해급여

① 정의

-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
-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을 지급됨

② 지급 요건

-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
-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 된 상태이거나 계속 치료해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,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에 이른 것
- 장해가 남을 것
-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
- 법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표의 최하위 기준인 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해야 함

③ 청구 가능 시점

- 요양이 종료된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청구 가능

④ 지급형태

- 신체장해 정도가 심하여 3급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연금으로 지급
- 8급 이하의 장해는 일시금으로 지급

장해등급	지급형태	
	원칙	예외
1급 ~ 3급	- 연금으로만 지급	-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

	- 단, 4년분의 1/2해당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음	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
4급 ~ 7급	-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가능 - 연금선택 시 2년분의 1/2 해당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음	.
8급 ~ 14급	- 일시금으로만 지급	.

⑤ 지급금액

- 장해보상 일시금 = 평균임금 × 해당 장애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
- 장해보상연금 = 평균임금 × 해당 장애등급의 연금일수 × 1/12 (매월지급)

나. 간병급여

① 정의

- 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산재근로자의 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

② 청구 방법

-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
-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
- 공단에서 상시 또는 수시 간병필요 여부 등을 파악
-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

③ 지급요건

- 상시 간병급여 : 간병급여는 타인의 간병이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
- 수시 간병급여 :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

④ 지급금액

- 간병급여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
- 수시간병급여의 금액은 상기 간병급여의 금액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
-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 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, 고시된 간병급여액보다 적은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급함

다. 직업재활급여

① 정의

- 업무상 재해로 장애가 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,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 훈련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

② 종류

-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
-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

③ 직업훈련비용 · 수당 지원 (산재근로자 지원)

■ 지원대상

- 장애등급 제1급 ~ 제12급에 해당자 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애등급 제1급~제12급까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
-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
-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-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

■ 지원금액

- 직업훈련비용 : 수강료 ·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과 해당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계약한 항목 및 금액만큼 지급
- 직업훈련수당 :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지급 하며, 1일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,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

④ 직장복귀지원금 등 (사업주 지원)

■ 직장복귀지원금

- 장애등급 제1급 ~ 제12급 산재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

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

- 장애등급 제1급 ~ 제12급 산재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킴
-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함
- 이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

3) 사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

가. 유족급여

① 정의

-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
-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

② 지급 형태

-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 (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%, 연금 50% 가능)
-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
③ 지급 요건

■ 업무상 사망

-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즉사한 경우
-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
-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하여 사망한 경우
-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·악화하여 사망한 경우
-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 될 것
- 선박이 침몰·전복·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·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
-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
- 천재지변, 화재, 구조물 등의 붕괴,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

④ 유족보상연금

■ 전액연금

-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
- 유족보상연금액 = 기본금액 (급여기초연액의 47%) + 가산금액 (급여기초연액의 5% ~ 20%)

■ 반액연금

- 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할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
-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을 50을 감액하여 지급

⑤ 유족보상 일시금

- 연금수급자격자가 없거나,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
- 평균임금의 1,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장례비

① 정의

-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비용으로 지급하는 급여

② 수급권자

- 원칙적으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
-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
(장례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)

③ 지급금액

- 유족이 장례를 지내는 경우
 - 평균임금 x 120일분
-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는 경우
 - (평균임금 x 120일분) 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례 지낸자에게 지급
- 장례비가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례비로 함

4)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

가. 진폐보상연금

-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
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91조의3제1항·제2항)
-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
 - 변경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 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

나. 진폐유족연금

-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
-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 된 진폐보상연금 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
- 진폐유족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